

2023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 공연예술-초연 】 심의평

2023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 초연 부문의 심의는 총 261건의 접수가 있었고 그 중 총 30건을 인터뷰하여 최종 2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분야 별 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극 분야에는 정극, 퍼포먼스, 음악극, 신체극, 거리예술, 서커스, 인형극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동시대와 인간을 비추고자 하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창작과 번역, 각색 등 텍스트에 대한 접근 방법도 다채로웠는데, 단순하게 소재를 중심으로 풀어내기보다는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 뚜렷하고, 형식과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극 작업을 통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어가고자 하는 모든 연극인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음악 분야는 동서양의 음악과 더불어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융복합적인 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고 창의성과 구체적 창작계획이 우수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무용 분야의 경우, 개인보다는 단체 위주로 선정되었으며 창작적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들에 주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의성 있는 이슈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였으며, 담론보다는 실현의 구체성 측면에서 좀 더 준비되어 있고 작품과 연관하여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들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각각의 작업들이 지역의 예술 활동에 풍성함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작품을 창작하고 관객과 만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연 컨셉과 기획에 맞는 예산과, 홍보계획, 공간 계획 등을 통해 계획된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창작이 단체의 그동안의 작업과 앞으로 개인과 단체가 성장하고 레퍼토리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모객이나 홍보에 있어 형식적인 내용이 많았다는 점이고, 기획 의도나 작품에 대한 설명에 있어 개인과 단체의 지금까지의 작업 및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선정 작품은 경기도의 다양한 공간에서 보다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앞으로 이번 작품이 단체와 개인의 레퍼토리로 개발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각 분야의 심의위원들의 심의평과 같이 우수한 개인, 단체들의 많은 제안이 있었고 최종 선정 작업까지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선정되신 예술인들의 성공적인 공연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3.2.23.

심의위원

홍성규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
허명진 (무용평론가)
권보라 (서울시뮤지컬단 지도위원 (기획PD))
김주연 (연극평론가, 드라마터그)